

### 「모형 속을 걷다」

이일훈 지음/ 숲/ 2005

집은 삶을 향한 존재의 거점이다.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집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 집 바깥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대부분 정해진 길을 택하기 마련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직선을 지향한다. 그러나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길의 방향은 굴곡지다. 집으로 이끄는 길이 필연적인 사람의 선이라고 한다면, 집



바깥으로 나가는 길은 존재의 바깥 즉 벗어남의 길이다. 집으로부터의 탈출이란 표현을 자주 쓰는데, 탈출이 집을 나와 바깥을 뜻하는 반면, 사회로부터의 탈출이란 표현은 반드시 집으로의 귀환을 의미하지는 않을 성싶다.

집이란 말에는 군더더기가 붙어 있지 않다. 첫소리 ㅈ과 받침 ㅂ은 서로 빈틈을 보이지 않아 '집'이란 음가는 지표처럼 단단하다. 자음 'ㅈ'은 조화이고, 'ㅂ'은 균형이다. 모음 'ㅣ'는 반듯하다. ㅈ의 음가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고, ㅂ의 음가에는 절실함이 배어 있다. 아쉬움과 절실함 사이(모음 'ㅣ' 처럼)에 집을 짓는 건축가들이 있다. '집'에 대한 뜻과 불리는 소리로 보면 집짓기와 짓는 이는 보수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삶을 긍정하는 필연적인 귀소의식과 그 삶을 담아내는 형식, 다른 말로 하면 "공간의 꿈"(23쪽)으로서 집이 서로 맺어져 있기 때문이다. 건축은 그 어떤 예술보다 삶의 사회적 산물이며 구체적인 풍경이다. 건축에 관한 책을 읽게 되면 혁명적인 건축가라는 말들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적' 건축가의 '새로운 건축'은 삶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 형식의 변형일 뿐이다. 건축과 건축가에게는 집에 사는 이들과 그들의 삶을 초월하는 개념이 없다. 삶을 초월하는 건축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삶을 담은

작은 공간 상자"(20쪽)인 건축은 언제 어디서나 삶과의 근본적이며, 피할 수 없는 연루이다. 사실 건축은 심오하지 않다. 건축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공장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변모할 뿐이다. 하여 "건축의 결론은 언제나 사람"(23쪽)이다.

건축가 이일훈이 쓴 「모형 속을 걷다」는 건축에 관한 솔직한 고백이다.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건축가는 건축을 통해서 자신의 관점을 숨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집 짓는 속셈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땅의 선택, 계단과 벽을 만드는 일, 땅과 길을 이어놓는 다리, 돌부리처럼 울퉁불퉁한 땅과 자연의 풍경을 통하여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동거하기도 하고 분거하기도 하는 작가의 욕망을 다큐멘터리 수법으로 보여준다. 책 속에 담긴 모든 이야기는 저자가 30년 가까이 지은 건축작품을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일훈의 작품들을 보면, 아니 그가 자신의 건축에 대해서 쓴 글을 읽으면, 건축은 비인격적 3인칭과 같다. 불어에서 "비가 온대 pleut"라고 말할 때 주어인 'Il'과 같다. 비인격인 'Il'이 주어노릇을 하는 것처럼, 집은 비인격적인 주어와 같다. 그 절정은 이런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복도가 넓으면 지나는 걸음걸이가 빠르고, 빠름은 사람끼리의 예의를 소홀히 여기게 만든다. 서로 간섭 없이 스쳐갈 수 있는 넓은 복도는 언뜻 여유로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인간관계에서는 외면과 소외를 조장하는 악덕의 동선이다."(104쪽)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독자는 건축가를 관대하게 보던가 아니면 자신도 건축가처럼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니게 된다. 사족으로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자신의 집을 스스로 지은 이들을 제일 부러워했다. 그것은 삶 속에 자신의 존재의 거처를 만든 용기와 힘에 대한 존경이다. 지금도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만약 집을 짓게 되면, 나는 작은 집을 짓고 싶다. "건축이건 사람이건 내면과 외면이 조화를 이룰 때가 가장 아름답고 참되다. 작으면 작을수록 조화를 이루기가 훨씬 편하다. 작으면 모든 것이 단출하고 가벼우니 뜻을 펼치기가 훨씬 유리하다. 작은 것을 지향하는 모든 존재는 욕심과 욕망도 적으니 말이다."(89쪽) 나는 건축을 더 보고 느끼고 깨달아서 내가 살 집을 짓고 싶다.

안치훈 | 호서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연구평론가